

최백호 - 영일만 친구(1979)

崔白虎
골든디럭스 第一集

영일만 친구 * 내 마음 갈 곳 잃어

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

사는 어릴 적 내 친구

뜨거운 따뜻 마시며 넓은 바다의

아침을 맞는다

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

바다가 고향이란다

갈매기 내려 위에

시를 적어 띄우는

젊은 날 때는 가슴 안고

수평선까지 달려나가는

뚝을 놓아 물러자 거친 바다를

달려라 영일만 친구야

소중한 인연을 마주하는

공감의 노랫말

오랜 시간이 흘러도 고마웠던 인연이 잊히지 않는 까닭은 그 사람과의 따뜻하고 정겨웠던 기억 때문 일 것이다. 그 사람은 이웃, 직장동료, 혹은 친구일 수도 있다. 문득 떠오르는 인연들, 그 인연들과의 시간을 회상하는 일은 종종 우연히 듣게 되는 음악에서 비롯되기도 한다. 필자가 과거 함께 방송을 했던 담당 PD와의 소중한 시간을 회상하게 된 것도 얼마 전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이 노래 덕분이다.

1979년 발표된 <영일만 친구>는 당시 최백호가 친구에게 전하는 노래로 알려져 유명세를 탔다. 이 곡의 사연은 이렇다. 1977년 <내 마음 갈 곳을 잃어> 발표 후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최백호는 영일만에서 음악카페를 운영하던 그리운 친구 홍수진을 찾아갔다. 둘은 모두 부모님을 일찍 잃은 아픔이 있었고,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자연스레 막역한 사이가 된 벗이다. 영일만에서 친구와 소주를 기울이며 시대의 아픔을 논하던 최백호는 친구 홍수진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한다. 이렇게 탄생한 <영일만 친구>는 1979년 <최백호 골든디럭스1집>에 실리며 큰 인기를 얻게 되고, 최백호는 이듬해 TBC 방송가요대상 남자가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다.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곡은 최백호를 대표하는 노래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.

<영일만 친구>의 주인공은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친구 홍수진이다. 최백호는 친구와의 추억을 노래로 만들고, 그 친구는 세상 하나뿐인 노래를 선물 받은 것이다. 이후 노래와 함께 둘

의 사연이 널리 알려지면서 1994년 영일만 호미꽃에는 <영일만 친구> 노래비까지 세워졌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7년 친구 홍수진은 병마로 세상과 이별하게 된다. 그래서일까. 여전히 많은 무대에서 <영일만 친구>를 부르는 최백호의 음성을 듣고 있노라면 세월의 무게와 함께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지는 듯하다. “시대는 변해도 감정은 남는다”는 말처럼 노래 <영일만 친구>에 담긴 그들의 우정은 노랫말 속에 계속 살아 숨쉴 것이다.

<영일만 친구>에 얽힌 사연처럼 필자도 담당 PD와 함께 라디오를 진행하며 마음을 나눴고, 질책과 응원 속에 젊은 날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갔다. 그리고 지금은 언제라도 웃으며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. 문득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<영일만 친구> 노랫말을 들으며 젊은 날의 한때를 마주하니, 다시금 대중가요가 건네는 공감의 힘을 깨닫게 된다.

소중한 기억은 뒤에 남겨지는 법이다. 그리고 소중한 기억을 회상하는 일은 지금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. 그래서 대중가요 속 노랫말과 멜로디는 문화와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의 예술이라 부른다. 언제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항상 존재해왔다. 그리고 그들과의 기억은 변치 않고 그 자리에서 회상을 기다린다. 오늘 오래된 사진첩을 열어 옛 인연들을 추억해보자.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듣고 공감했던 대중가요를 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.

• 외부 필진의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WRITER



심재승 음악칼럼니스트
前 교통방송 DJ